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교회소식

◆ 모임

1. 교구위원회 청지기 수련회 / 오후 12시 30분 602호
2. 2월 권사회 월례회 / 25(주) 3부 예배 후 웨민홀
3. 바울선교회 월례회 / 3월 1일(금) 오전 9시 청계산 초원의 집
4. 고등부 겨울수련회 / 1일(금) ~ 2일(토) 오후 3시까지 601호 701호 706호 사용

◆ 알림

1. 금일 세례식 실시 - 금년도 첫 번째 세례식인 2월 세례(세례, 입교)식이 오늘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2. 섬김위원 추가 임명 - 권사회 부회장 : 김서윤1 권사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9시-17시30분	403호	유아부	11시-12시10분	706호
유치부	11시-12시10분	702호	유년부	11시-12시10분	701호
초등부	11시-12시10분	601호	중등부	9시-10시	501호
고등부	9시-10시20분	101호	청년부	15시30분-17시	601호
신혼가정부	12시30분-14시	606호	사랑부	10시30분-11시30분	603호
신앙강좌부	12시15분-12시55분	802호	소망부	10시10분-11시	102호
세례교육부	12시10분	609호	새가족부	10시10분-14시	202호

부 목 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최중국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손주찬 전진석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은 협동목사 양정호
 선교사 권광해(서아시아), 이은준·강혜경(카자흐스탄), 이경엽·송은옥,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김영호·서향경(러시아)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위나이(인도), 에디슨 몰릭, 라곤 뽀꾸아, 까첸드로 리씨, 도렌드로 디오, 토론 쾰뽀공, 오물 쾰쾰마, 폰노야 므롱, 맨톤 므롱(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김명일(군선교)

우리의 비전 (vision)

-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위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Dal-ig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용서하셨습니까? ”

■ 마태복음 18:21-35

큰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작은 것을 용서하지 못한 종의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용서했는가?”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1. 베드로의 질문

본문 21절의 베드로의 질문은 기록한 마태의 기록 의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마태는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이끌고 북쪽으로 이동하여 안디옥 인근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들을 일컬어 마태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순간마다 솟구치는 원망과 복수심과 분노가 그들을 어렵게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의 사람들에게 마태는 베드로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누구를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복수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고 기뻐하면서 강요하게 순교의 제물이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가르치심 때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한의 용서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 용서의 능력을 눅17:5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간청이었습니다. 용서의 힘이 믿음에서 나오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그 사람을 믿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2. 예수님의 비유

베드로와 이런 대화를 나누신 주님은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에게 일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무한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이웃의 작은 허물도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일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것은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빚을 의미하는 헬라어를 주기도문에서는 죄로 번역했습니다. 이 비유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용서 받을 수 없는 무한의 죄를 지은 존재가 우리들임을 밝혀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사소한 문제도 서로 용서하지 못함을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물론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는 여러 합당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매우 합리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의 원칙에 의하면 그 역시 나 자신의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때문에 ‘용서하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용서가 가지고 올 이해득실을 따지게 되면 누구도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만 생각하고 그 정신으로 이웃을 용서하시는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3. 용서는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3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이 불행한 종말이 되지 않고 행복한 과정과 종말을 맞을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와 화해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의 주역인 요셉은 그가 총리가 된 다음 자신에게 치명적 누명과 흑독한 감옥 생활로 인생의 황금기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게 한 보디발의 처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노예상인들에게 팔아버린 형들에게 대해서도 오히려 위로하고 안심시키며 애굽에서의 안전한 삶을 책임져 줍니다. 그리하여 그는 강력한 결속력으로 가족을 민족공동체로 발전시킵니다. 용서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의 종말도 영광스럽고 평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용서는 내 마지막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구원과 하나님의 용서를 확정하게 됩니다. 용서를 위해 십자가를 향하신 주님을 뒤따르면서 주변 모두를 용서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시 간	인 도
I 오전 9시	최종국 목사	오윤걸 장로	III 오후 2시	현종필 목사
II 오전 11시	조원영 목사	최형열 장로		
입례송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인 도 자
예배로 부름	히 13:15-16	인 도 자	* 신앙고백	다 함 께
기 원	인 도 자		* 경배와 찬양	찬 양 팀
* 찬 송	9(1절)	다 함 께	환영과 축복	다 함 께
* 신앙고백		다 함 께	* 봉 헌	다 함 께
* 성서 교육	125(사순절2)	다 함 께	* 봉헌, 목회기도	설 교 자
* 송 영	6	다 함 께	찬 양	찬 양 대
기 도	말 은 이		교회 소식	영 상 광고
찬 송	261	다 함 께	성경 봉독	마 18:21-35
성경 봉독	마 18:21-35	인 도 자	설 교	“용서하셨습니다니까?”
성도의 교제	다 함 께		결단의 기도와 찬양	찬 양 팀
봉헌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봉헌송	634	다 함 께	* 후 주	찬 양 팀
* 봉헌기도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다 함 께			
설 교	“용서하셨습니다니까?”	손달익 목사		
* 찬 송	311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유태왕	차주연	이주희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백경화	전지희	김진이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최유현		김양언	윤주일	3부 예배 신디시스트	이요한	
찬양예배	베들레헴	박래경	안효주	박수강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마 18:35)		
수요 I 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금주의 성구			
수요 II 부	시 온	최영은		조현경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찬 양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오후 4시30분	현종필 목사	윤성남 집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121:1-2	인 도 자
찬 송	93	다 함 께
기 도	말 은 이	
찬 송	151	다 함 께
성 경	고후 5:17-19	인 도 자
세례식	말 은 이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새 피조물이 된 사람들”	손달익 목사
선교보고	말 은 이	
* 찬 송	292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I 오전 11시	장석남 목사	김정미 권사
II 오후 7시	장석남 목사	최세정 권사

성 경 왕하 17:1-23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하나님을 떠난 역사의 종말” ... 손달익 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박수강·김복희2·신아령

설 교 손달익, 김익환 목사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찬 양 찬 양 팀

설 교 최종국 목사

제4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서울가족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시

피아니스트: 홍혜란

설 교 손달익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금요기도회		오후 8시